

# 50년 묵은 전남 저수지 안전할까

## 10곳 중 1곳 “정밀진단” 필요성 제기

### 경주 산대저수지 등 붕괴... 보수작업중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된 농업용 저수지 10곳 중 1곳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수지 10곳 중 3분의 2는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뚫 붕괴사고 등 재해발생 우려가 커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지난달 31일 전남지역 저수지 1,051곳에 대한 안전점검(육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143곳이 저수지 안전도 5등급 중 4등급인 D등급(위험·농림축산식품부 의뢰 후 시설 개보수 결정)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저수지 특성 및 석축, 흙 공사 부분, 콘크리트 물 넘이, 수로 등 항목에서 긴급 보수

가 필요하다는 판정이다. 이어 ▲A등급(매우 안전) 129곳 ▲B등급(안전) 425곳 ▲C등급(보수) 354곳 ▲E등급(긴급보수) 0곳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A~C등급까진 시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또다시 D등급 이하로 나올 경우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저수지 노후화도 심각한 상태다.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전체의 66.5%인 699곳으로 나타났다. 30년~50년 된 저수지는 25.6%인 269곳이었으며, 30년 이하의 저수지는 7.9%(83곳)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매 분기마다 한 차례씩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주·장성호(8600㎡)를 비롯한 소규모 저수지(50만㎡ 이하)를 대상으로 육안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 안전점검이 주로 육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노후화도 심각한 만큼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등 붕괴와 같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안전점검

### 소규모 저수지 안전진단

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와 관련, 전국의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의 50만㎡ 이하 소규모 저수지 313곳으로, 15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이 아닌 50만㎡ 이하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남지역은 모든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시설물 긴급안전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받은 저수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보수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50만㎡ 이하 소규모 저수지는 지금껏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육안진단을 했을 뿐 정밀안전진단을 하지는 않았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뚫 일부가 붕괴돼 주택 1동, 상가 5동, 차량 1대, 농경지 1.5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 무등산 등반객 대상

### ‘그린포인트제’ 도입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14일 무등산 탐방객을 대상으로 주위온 쓰레기의 무게만큼 포인트가 적립되는 ‘그린포인트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립된 포인트는 전국 국립공원의 주차장, 야영장 등 공원시설 이용에 사용하거나 스틱, 장갑 등의 상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주요 국립공원 대피소 수용인원의 10%를 그린포인트 이용자에게 할당해 대피소 예약시 유용하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참여방법과 포인트 적립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자원보전과(062-230-201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렬기자 halo@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1분** **해질녘 09시 03분**  
**해지기 19시 05분** **달 뜨기 23시 30분**

**쌀쌀한 아침**  
맑은 후 낮부터 구름 많겠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음	2/18℃
목포	구름많음	2/16℃
여수	구름많음	4/14℃
나주	구름많음	0/19℃
완도	구름많음	3/17℃
구례	구름많음	0/18℃
강진	구름많음	0/17℃
해남	구름많음	0/17℃
장흥	구름많음	0/17℃
순천	구름많음	0/17℃
영광	구름많음	0/17℃
진도	구름많음	1/16℃
전주	구름많음	0/17℃
군산	구름많음	0/14℃
남원	구름많음	-2/17℃
속초	구름많음	4/14℃

구분	종량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김기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1.0~2.0m	주의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1.0~1.5m	주의	높음

구분	종량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목포 05:04	10:13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목포 16:53	22: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여수 11:30	05:33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1.0~2.0m	17:37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날씨						
최저/최고	10/21	13/22	10/18	8/18	5/16	4/18

# 산수동 ‘호두메 마을’ 도심속 폐촌 오명 벗는다

## 광주도시공사, 208억 들여 도시형주택 추진

### 오늘 광주시장 등 200여명 참석 기공식 가져

도심 속 폐촌으로 전락한 광주시 동구 산수동 ‘호두메 마을’이 도시형 생활주택단지로서 다시 태어난다.

1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동구 산수동 호두메 마을에서 강준태 광주시장·노희용 동구청장·박주선 의원 등 내·외빈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기공식을 연다. 이번 사업으로 호두메 마을(대지면적 8300㎡·2500평)엔 82.6㎡(25평, 25세대)·105.7㎡(32평, 70세대) 등 95세대 규모(5층짜리 4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208억원이며, 입주예정일은 내년 10월 초께다.

현재 보상 및 이주가 90% 이상 완료된 상태로 동구는 지난해 초 주민 설명회를 통해 호두메 마을을 도심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뒤 주민협의체·동구·광주도시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동구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낙후지역 환경 개선·주민 재정착률 증가·도심권 인구유입·주민 삶의 질 개선 등 도심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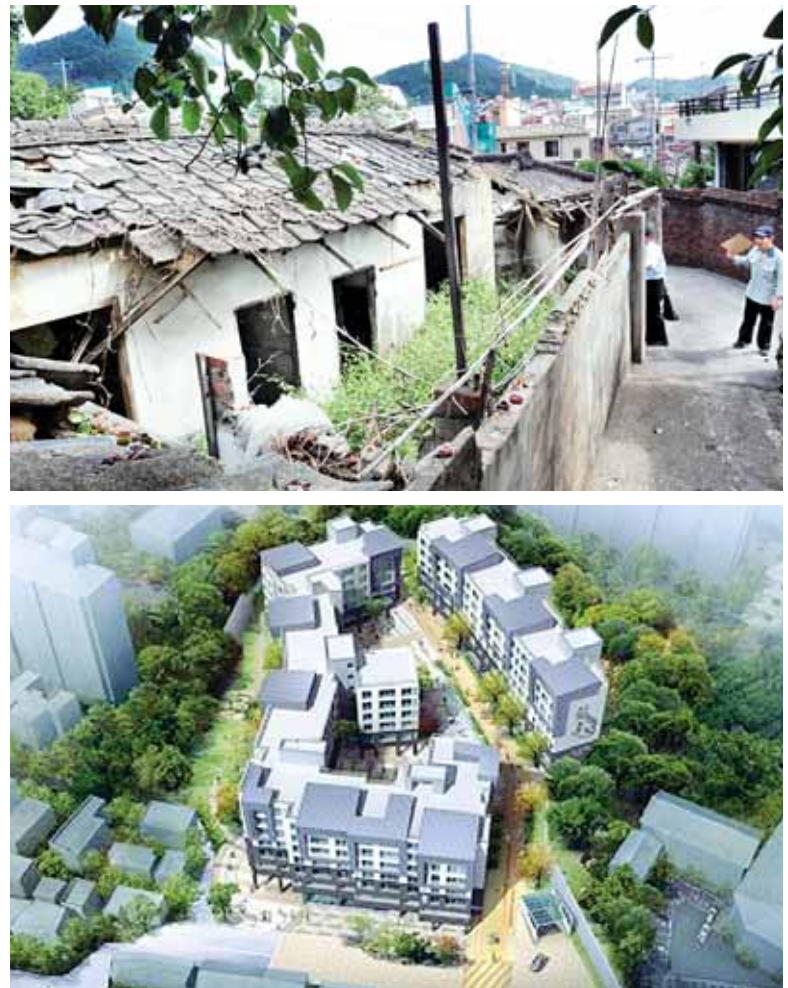
그동안 호두메 마을은 도심 공도화현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한 두명씩 떠나면서 도심 속 폐촌으로 전락했다. 최근까지 폐·공가만 70채에 달했다.

〈광주일보 2011년 9월 21일자 6면〉 특히 폐·공가에 빈방·칸·폐 가구·이불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쌓이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여름마다 모기·악취에 시달려왔다. 또 고철 전문 절도범들이 폐·공가에 설치된 대문 등 각종 고철을 싹쓸이 해가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호두메 마을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 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의 상징적인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동구의 경우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한데,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다른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를 ‘도시재개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도시재개발의 비전을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복원’으로 설정, 본격적인 도시재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산수동 호두메 마을 70여 가구중 60여가구가 폐가로 방치돼 철거소나 탈선 및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사진 위) 아래는 재생사업 후 조성되는 호두메 마을 도시형 생활주택 조감도.

## 광주시 부교육감 이계영

## 전남도 부교육감 이종흔



이계영 부교육감 이종흔 부교육감

광주교육청 신입 부교육감에 처음으로 여성인 이계영(54) 교육부 국장이 지난 12일 임명됐다.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에는 이종흔(5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빙연구위원이 발령됐다.

이계영 신입 부교육감은 해남 출신으로 서울 계성여고와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7회·여성 행사 3호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수련장 등을 거쳤다.

이종흔 신입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교과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나와 미국 오리건대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장,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남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국민 안심 치안 행정 주력”

###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 취임



“주민이 공감하는 안심 치안 확보가 경찰의 존립 이유라는 점을 명심하고 치안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제 8대 정순도(56)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2일 광주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정 청장은 “치안의 본질은 국민 중심의 시각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있다”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심적 위협 요인인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청장은 “아동, 장애인, 노인, 영세상인, 범죄 피해자 등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치안서비스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적 과 법규에 얽매인 경직된 치안 활동,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정, 막무가내식 경력 배치 등은 창의적 활동의 걸림돌”이라며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안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화순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거쳐 1981년 3월 간부후보생 29기로 경위에 임용됐다.

영양·보성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고 광주청·강원청 차장을 거쳐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청 차장을 지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